로컬플러스

김제 건설기계 교육 신청 접수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건설기계 조종 면허 취득을 위한 소형 건설기계 교육 신청을 받고 있다.

김제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3월에서 12월 까지 김제에 사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소형건설기계인 굴삭기, 지게차, 스키로더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얻어 금년도에 시작되는 소형 건설기계 자격 취득 교육 신청을 받고 있으며 봄철부터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교육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생을 모집 선발하여 김제자영고등학교와 산학 협동으로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매년 지속적으로 자격취득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 다문화가정 한국어 교육

정읍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갖는다.

지원센터는 "다문화 가정의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를 위한 한국어교실을 개설, 12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 12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원센터에 따르면 한국어교육 과정은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집합 한국어 정규과정 1단계~4단계, 6개월 이전 초기입국자를 위한 새내기반, 방학특강반, 고급단계의 한국어능력시험대비반, 국적 취득을 위한 사회통합반 등 총 8개 반이다.

한국어교육을 비롯 프로그램 문의는 정읍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63.531-0309)이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서림지구대 교통사고예방 나서

부안경찰서(서장 강현신) 서림지구대(지구대장 강종삼)는 교통사고 및 교통불편 민원 다발 구간과 도로 공사현장 등 관내 도로 취약지점에 대해 교통안전시설물 일제점검을 펼쳐 교통사고예방 발벗고 나섰다.

이를 위해 서림 지구대는 겨울철 폭설에 따른 염화칼슘 사용으로 도로 파손과 유실 우려 지점 및 오염 훼손된 교통시설물을 파악하고 비뚤어지거나 찌그러진 교통표지판을 고정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김제시는 안정적인 자치재원 확보와 공평과세 구현을 위하여 2016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을 수립하여 징수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김제시는 2015년 12월말 기준 이월체납액이 30억5,700만원 발생함에 따라 체납액의 30%인 9억1,700만원을 징수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상·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정하여 직장인에 대한 급여압류, 사업자에 대한 카드매출채권압류, 금융기관 조회를 통한 예금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군은 위도상사화가 개화하는 오는 8월 말 축제를 개최, 여행사 기자단과 사진작가 팸투어 등 위도상사화를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을 본격 추진될 계획이다.

위도 흰색 상사화 관광화 나서

부안군, 문체부 야생화 관광자원화 공모에 선정… 국비 2억 5000만원 확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흰색 꽃의 상사 화인 위도상사화를 볼 수 있는 부안군 위도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야생화 관광자원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부안군은 위도가 야생화 군락지 발굴 및 관광자원화를 위해 문체부에서 주관한 야생화 관광자원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억2500만원 등 총 사업비 2억5000만원이 확보됐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지자체별 특색 있는 고유자원을 발굴·지원해 지역관광 역량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려고 생태관광·노후관광시설 재생·야생화 관광자원화 등 3개 분야에 걸쳐 '2016년 생태 녹색관광 자원화 공모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부안은 지난해 전국 3대 명품길로 각광받고 있는 변산 마실길이 이 사업에 선정돼 국비 2억 원을 지원받은 데 이어 2년 연속 선정된 쾌거를 올렸다.

더욱이 부안군은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해 위도와 관련된 전설·역사 스토리를 정리한 안내판을 설치하고 자연군락지를 이루고 있는 위도상사화 군락지에 대한 조사·복원·관리·새로운 군락지 조성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위도상사화가 개화하는 오는 8월 말 개최된 위 도상사화축제에 맞춰 여행사 기자단과 사진작가 팸투어 등 위도상사화를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을 본격 추진될 계획이다.

최연곤 부안군 문화관광과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위도상사화를 테마로 한 자연군락지 복원과 위도상사화길 조성 등 위도상사 화의 관광자원화가 본격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위도 낚시관광형 다기능어항 개발, 위도 권역 단위 종합 정비사업, 위도연안 바다목장 조성, 위도 바다낚시터 조성 등 대형 개발사업과 연계해 위도가 가진 천혜의 자원에 스토리·콘텐츠를 입혀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시, 제설 예비차량 추가 확보 추진

차량통행 불편 대책마련

김제시(시장 이건식)는 지난 달 23일부터 24일(2일간)까지 내린 30㎝의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가 겹쳐 통행량이 적은 도로와 마을진입로, 마을 안길 등이 빙판길로 변해 1주일 이상 주민 및 차량 통행에 큰 불편을 겪음에 따라 신속한 제설을 위한 장비 보강 및 제설체계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김제시에 따르면 현재 운용중인 제설장비는 덤프(8t, 15t) 5대, 제설기 5대, 모래살포기 5대와 굴삭기 1대, 염수제조기 1대 등 총 17대로 그동안 제설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폭설과 함께 한파가 지속되면서 일부 법정도로와 이면도로·마을진입로·마을 안길 등은 제설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큰 불편을 겪었다.

이에 따라 제설 상황 및 노면상태를 파악하여 제설차량을 적기에 투입 및 통제할 수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설제 재충전 소요시간 단축을 위한 염수보관기지(용기) 신규 설치, 폭설에 대비한 예비차량(덤프, 제설기, 살포기 포함) 추가 확보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제시 제설구간 이외의 도로는 읍면동장 책임하에 제설을 실시하되 마을간 연결도로, 진입로 등은 읍면동사무소에서 실시하고 마을안길은 지정한 장비로 자체적으로 실시한 후 유류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종훈 전 농어촌공 감사 고향사랑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후원회원 가입

김종훈 전 한국 농어촌공사 상임감사가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후원회원에 가입 고향 사랑이 남다르다.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측은 김종훈 전 상임감사가 최근 김종규 부안군수를 만난 자리에서 열심히 배움에 정진하고 있는 고향 후배들의 소중한 꿈을 응원하고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에 동참코자 후원회원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김종훈 전 상임감사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가정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힘들게 다닌 경험이 가슴에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며 "고향의 후배들이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장학재단이 잘 챙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종훈 전 감사는 부안군 보안면 출신으로 전주대학교 대학원에서 체육학 석사를 받았으며 사회복지법인 곰누리 복지재단 이사와 새누리당 새만금 특별위원회 위원, 새누리당 고창·부안 당협위원장,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전북 선대본부 총괄본부장을 역임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농기센터는 7~8월에 고추품종 비교전시포를 개설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정읍농기센터 고추육묘기술 안내

고품질 생산 위한 품종선택 · 주의사항 등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본격적인 고추 파종시기를 맞아 고품질 고추 생산을 위한 품종선택 방법과 육묘재배 기술 등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

농업기술센터는 "고추 품종선택은 한해 농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며 "고추는 품종도 많고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영농규모에 맞게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7~8월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고추품종 비교전시포를 방문하면 품종별 특성 및 고추 재배기술에 관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며 많은 농업인들이 찾아줄 것을 당부했다.

기술센터에 따르면 고추 품종은 1개 품종 보다는 2~3개 품종을 선택하고, 너무 많은 품종을 식재하는 것은 고추 품질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건고추용 품종은 색깔이 곱고 두꺼우며 다수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개화기가 빠르고 마디가 짧으며 생육후기까지 초세가 강하고 꼭지가 잘 떨어져 수확이 용이한 품종을 선택해야 한다.

고추 육묘 방법으로는 종자를 30℃ 내외의 미지근한 물에 5~10시간 담그고, 물기가 있는 천에 싸서 28~30℃ 정도로 유지해 싹을 틔운 후 육묘용 상자에 심는 것이 좋다. 고추의 본 잎이 2매 정도 나왔을 때 1차 옮겨심기를 해야 하는데 이때는 꽃눈 분화가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따라서 한낮의 온도는 25~28℃, 야간에는 12~15℃로 관리하고, 고온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기를 해줘야 한다.

육묘후기에 비료성분 부족으로 잎이 노랗게 변할때는 요소 0.3%(요소60g/20L)액을 잎에 뿌려주는 것이 좋으며, 미숙된 퇴비를 뿌릴 경우 가스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정읍=김대환기자